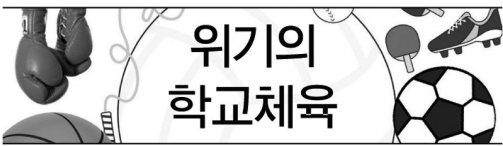


명문 운동부 해체하거나 FC 전환...엘리트 체육 뿌리째 흔들



〈3〉 학교 운동부 '해체·전환' 확산

광주 지역 학교 체육이 저출산에 따른 선수 구인 난으로 엘리트 육성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 때 명문으로 자리 잡았던 학교 운동부들이 줄줄이 해체되거나 클럽(FC)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출전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역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0일 광주축구협회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에서 학교 축구부 형태를 유지하는 곳은 여차 축구부를 운영하는 하남중앙초 한 곳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는 총 5개의 학교 축구부가 사라지거나 FC 체제로 바뀌었다.

2023년 3월 광주남초등학교 축구부가 해체됐고, 같은 해 7월에는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축구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두 학교 모두 프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강팀이었던 만큼 지역 축구계에 미친 충격은 컸다.

많은 축구부가 FC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월곡초등학교와 송정서초등학교 축구부는 2021년 8월 FC로 체제를 바꿨고 2022년 2월에는 광주북성중학교 축구부도 FC로 전환했다.

FC 전환은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어 인력 공급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성적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줄어들어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월곡초 축구부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 창단 이후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3회,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우승 등 화려한 성과를 거뒀지만 FC로 전환된 이후에는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클럽 지도자는 행정·시설 확보까지

광주 축구부 하남중앙초 한곳 뿐
배구부 인원 미달로 소년체전 불참
저출산에 선수 감소...대책마련 절실
목적·수준별 FC 분류 선수 양성해야

도맡아 경기력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서 학교 축구부와 클럽을 모두 운영해본 한 FC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FC는 학교 축구부만큼의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 축구부는 선수와 감독·코치 모두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FC는 오락, 생활체육 개념으로 출전시 학교 축구부만큼의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광주의 축구 클럽은 U12는 10개팀, U15는 5개팀, U18은 2개팀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할수록 진출의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초·중학생 때 성적이 좋더라도 U18 2개 팀 안에 들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인재 유출의 우려가 생기는 지점이다.

엘리트 육성과 저변 확대를 분리해 운영할 만큼 인력과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학교 축구부는 대회 출전 준비, 교육청 감사, 회계·문서 업무 등을 행정실에서 지원받지만 FC는 감독과 코치가 모든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 연습장소를 매번 임대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021년 FC로 전환한 학교들은 내년을 끝으로 5년간 받던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만료된다. 자립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배구는 더 벼랑 끝이다. 클럽 형태로는 대회 출전이 불가능한 종목 특성상 학교 운동부 해체는 곧 선수 생활의 종료를 의미한다.

과거 광주 배구 명문이었던 광주시 서구 치평초 배구부는 올해 선수 인원 미달로 제54회 소년

체전에 출전조차 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6명의 정원 중 대학 출전 가능 연령인 5~6학년이 5명에 불과해 최소 인원인 6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치평초 배구부는 2005년 창단 이후 현대건설 연맹회장기 전국 초등 배구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 우승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명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광주 지역 유일 남녀 초등 배구팀 두 학교의 지도자들은 학생 수가 많은 인근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며 팀 운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안전·학업관리 인력 부족과 시설 부담을 이유로 운동부 창설에 소극적이다.

배구의 경우 클럽이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라 클럽 형태의 배구단은 출전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 학교의 인원 미달이 곧 지역 종목 생태계의 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스포츠 산업의 굵직한 종목인 축구와 배구의 성장을 위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선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의 흐름을 방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는 “현재 스포츠 산업은 선수 감소로 인해 FC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독일이 나 영국과 같이 FC를 목적별, 수준별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과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FC와 출전·선수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FC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프로리그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선 해외 사례처럼 실력별로 1~4단계로 나눠 좋은 선수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배구의 경우 “대한배구연맹(KOVO) 등에서 클럽을 유소년팀으로 인정하고 광주·전남의 선수들이 전국·세계 단위 무대에서 뛰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에서 김연경과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동신대, 장성에 '온마을GUARD 리빙랩' 개소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 협약...주민 참여형 안전·돌봄 실험 본격화

동신대학교가 지역 맞춤형 주민 참여 안전·돌봄 실험을 본격화하기 위해 장성에 제1호 '온마을GUARD 리빙랩'을 개소해 화제다.

20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에 따르면 동신대는 최근 장성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동희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장, 강대익 장성 황룡면장, 강성우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온마을GUARD 리빙랩' 개소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동신대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센터장 이동희)와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운영위원장 강성우)는 리빙랩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는 학문적·정책적 지원과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주민 참여와 현장 운영을 맡

으며 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온마을GUARD 리빙랩'은 지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안전·돌봄 문제를 발굴하고, 대학, 지자체, 지역 거점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실험 공간이다.

이번 1호점 개소는 실질적인 리빙랩 현장 활동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대학과 마을이 협력해 지역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본격적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문제해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전 교육, 돌봄 서비스 실험, 지역 맞춤형 해결책 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삶을 가르치는 학교, 사람을 키우는 교육'

전남교육청, 27일 대안교육 포럼

전남교육청이 오는 2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올해 전남대안교육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학생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람을 키우는 인성 중심 전남 교육의 방향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삶을 가르치는 학교,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전남형 대안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논의한다.

기조강연은 건신대학원대학교 이병곤 교수가 '유연한 품성 갖주기, 미래교육을 품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한빛고 졸업생 조경요씨가 '학교를 떠나보니 기억에 남는 것'을, 임재춘한

울고 교장이 '좋은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인권이다'를, 김도영 영산성지교 학생이 '대안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조영란 청람중 학부모가 '소통의 교육,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 복도에서는 10개 대안학교, 5개 대안교육기관이 참여하는 대안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23일까지다.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광식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적이 아니라 학생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며 "이번 포럼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남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1·2 입시 궁금증 해소...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

광주교육청, 25일 교육연구정보원
수능·내신 학습법·대입 전략 제공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올해 5번째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부모 아카데미는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고1, 2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입 전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해 '수능과 내신의 수학 학습법 및 맞춤형 대입 전략'을 주제로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1부는 EBSi 수학영역 대표강사인 서울 인창고 정종영 교사가 수학 학습법을 전한다. 정 교사는 'EBS 수능개념 알때까지 개념연습 확률과 통계', 'EBS 수능개념 3주 완성 개념끝판왕 수학 I·II' 등을 저술했다.

2부에서는 EBSi 입시 대표강사인 경기 소명여고 김진석 교사가 고1 맞춤형 대입 전략을 소개한다.

김 교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연구위원,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 학교장추천전형연구팀장, 경기도 진로진학교사협의회 연구국장 등을 지냈다.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는 오는 22일까지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특강은 행사가 끝난 후 EBSi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정은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신 최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